

★ 중앙교회 구역 모임(15-48) ★

※ **교제와 축복** /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 **모임을 위한 기도** / 대표 기도자

※ **경배와 찬양** / 580장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1. 삶 나누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러시아에 보리스 콘펠트라는 한 유대인 의사가 있었다. '스탈린은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라고 말한 것이 발각이 되어 체포되었고 강제노동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 의사였던 그는 수용소에서 진료소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다.

죄수들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의료카드에는 늘 건강하다고 적어 넣어야 했고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보내도록 압력을 받고 있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그에게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했으며 점점 그는 상부에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었다. 의술을 통해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돌본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형식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는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음을 느끼며 갈등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료 죄수를 통해 전도를 받았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던 그가 동료를 통해 복음을 전해들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다. 그 수용소 안에는 몰래 모이는 일종의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모이던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의사인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빛진 자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한다. 몇 차례나 의약품을 낭비하고 있고 환자들에게 너무 관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상관치 않고 환자들을 성심껏 치료한다.

한번은 대장암에 걸린 죄수를 치료하게 되었는데 수용소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술을 통해 그를 살려낸다. 수용소의 협박을 잘 알고 있던 환자가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도 왜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느냐" 묻자 그는 대답했다.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오래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가 누구데요?" 묻는 환자의 귀에 대고 콘펠트 박사는 속삭였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그를 살린 것이 알려지게 되어 보리스 콘펠트 박사는 명령 불복종의 혐의로 공개처형을 당했다. 그러나 그가 죽는 순간 그로 인해 살아난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흐느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렇게 흐느끼 울며 고백했던 사람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와 양심적 그리스도인이 된 알렉산더 솔제니친(Alexander Solzhenitsyn)이었다.

1) 위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 말씀나누기

설교 : 사랑의 빛 (본문 / 로마서 13:8-14, 암송 / 요한일서 2:15-16)

1.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타인에게 갚으십시오.
2. 사랑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눔1. 무슨 빛은 지어도 된다고 했습니까?(13:8)

나눔2. 사랑은 무엇을 완성하는 것입니까?(13:8-10)

나눔3. 처음 믿은 때보다 무엇이 더 가까워졌습니까?(13:11)

나눔4.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13:11-14)

3. 은혜나누기

- 1) 내 삶에서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 2) 사랑의 빛 진자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 3) 중보기도
 - (1)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 (2) 추워지는 날씨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월동준비로 재산과 건강을 지키게 하소서.
 - (3) 11월생명운동캠페인“감사릴레이”를 통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감사의 제목들이 늘어가게 하소서.
 - (4) 파송선교사를 위한 기도: 키르기스스탄 정환갑, 김세연 선교사
교회인도자들이 항상 공급하심을 체험하도록, 날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족이 되도록, 우즈베크에 세워진 사역자를 위해, 교회의 부역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 (5) 네팔 단기선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가운데 안전한 단기선교가 되게 하소서.

4. 사역나누기

1) 교회사역안내

● 생명운동 캠페인15-11월 “감사 릴레이” /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조

- 2) 찬송 / 찬484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 3) 헌금
- 4) 주기도